

# 울지 않으면 산타가 올까요

공수경 장편동화 | 이지오 그림 | 별숲 펴냄



- 은종이와 보슬이, 한결이는 새해 목표로 ‘절대 울지 않기’를 결심합니다. 일 년 동안 울지 않으면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지요. 세 아이는 저마다의 고민과 슬픔, 아픔이 생겼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. 책 속 내용을 떠올리며 인물에게 닥친 어려움(고민, 슬픔, 아픔)이 무엇인지, 각각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써 봅시다.

	인물에게 닥친 어려움 (고민, 슬픔, 아픔)	어려움을 해결한 방법
 <p>은종이</p>	<p>(예시) 보호소에서 지내는 루돌프와 함께 살고 싶으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함</p>	
 <p>보슬이</p>		
 <p>한결이</p>		

# 눈이 없으면 산타가 올까요

공수경 장편동화 | 이지오 그림 | 별숲 펴냄



“산타가 정말 있다면……,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도 줄까?”

보슬이가 물었다.

“눈이 보이지 않는 선물? 예를 들면?”

“예를 들면 사랑, 행복 이런 거.”

“음, 그런 것도 산타라면 줄 수 있지 않을까?”

보슬이 말에 나도 끼어들었다.

“진짜로 산타가 그런 것도 줄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바꿔 달라고 할 거야.”

“어떻게?”

“음, 공부 조금만 시켜야겠다, 학원을 몇 개 줄여 줘야겠다, 강아지를 키우게 해 주겠다, 이렇게.”



- 44~45쪽 아이들의 대화 중 -

- 만약 산타가 있다면,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,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?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(사랑, 행복 등) 중 받고 싶은 선물을 말해 봅시다. 왜 그 선물이 받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

# 울지 않으면 산타가 올까요

공수경 장편동화 | 이지오 그림 | 별숲 펴냄



- 《울지 않으면 산타가 올까요》의 은종이와 한결이, 보슬이는 고민과 슬픔, 아픔이 생겼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. 여러분에게도 책 속 세 아이처럼 함께 고민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?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고민을 공감받고 위로 받은 일, 함께 고민을 해결한 일을 떠올려 봅시다.

-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위로, 격려, 도움을 받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?



-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,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일은 왜 필요할까요?

- 나의 주변을 살펴봅시다.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,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까요?

